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인식과 준비도 : 전·후기집단 비교

Baby Boomers' Perceptions and Preparations for Later Life Planning
: the Comparison with the Former and the Latter Baby Boomers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광 인 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흥 성 희**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Kwak, In-Suk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influences of variables that affect baby boomers' perceptions and preparations for later life planning. An age-group comparison was made to examine differences in later life planning within baby boomers. 814 respondents were select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undertaken by the Ministry of Equality and Family in 2010.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year of their birth, the former baby boomers was 397 respondents who was born from 1955 to 1959, and the latter baby boomers was 417 respondents who was born from 1960 to 1963.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ormer baby boomers was less likely to prepare for later life, while was more likely to be aware of their later life planning than the latter baby boomers.

* 주저자 : 광인숙 (kwak1416@naver.com)

** 교신저자 : 흥성희 (hsh@kmu.ac.kr)

Second,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number of children affected the level of perceptions and preparations for later life planning of the former baby boomers, whereas sex and region affected those of the latter baby boomers. Third,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awareness of economic status were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preparation level for later life by both the former and the latter baby boomers. Fourth, former baby boomers who had greater awareness of the need to support their parents and their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prepare for later life. Fifth, baby boomers' subjective awareness of their economic status chiefly explained the gap between their level of perceptions and their preparation for later life, with the former baby boomers with more children and single-earner households more likely to show a gap between their level of needs and their preparation for later life.

Key Words : 전기 베이비부머 (the former baby boomer), 후기 베이비부머 (the latter baby boomer) 노후생활설계인식 (perceptions for later life planning), 노후생활준비 (preparations for later life)

I. 서론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대에 속한 집단은 연령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인 동시에 역사적 의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함인희, 2002),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독특한 생애과정을 경험한 집단이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교육기회가 본격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교육을 받아 부모세대보다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었고, 성인이 된 후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모두 경험한 세대이다. 특히 경제적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베이비부머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가족주기 상 자녀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점에 있어 최대의 피해자였으며(한경혜, 2010), 그 이후 중장년층에 대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한 경우도 많다(이성균, 2011). 평생직장, 중소기업의 직업관을 가지고 경기호황기에 첫 직장

에 입사했던 이들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은퇴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환경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비자발적 은퇴로 인한 경력 단절은 가족의 부양과 이들의 노후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변을 거치면서 이들은 가족내적으로는 핵가족화, 소자녀화에 따른 가족구성과 가족관계의 변화, 부모와 자녀 부양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어온 이들의 성장과정과 경험은 이전 세대와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2010년 현재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6%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살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은퇴 후 생애주기가 길어질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기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대(조선일보, 2011. 1. 3.) 라는 점에서 은퇴 후 노후 준비가 개인과 사회 전

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에 관한 연구관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시도된 연구와 조사들이 있다. 베이비부머가 수적으로 우세한 집단으로, 2010년 55세에 이르면서 이들의 은퇴로 인해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망하는 연구(정호성 외, 2010)와 베이비 부머의 집단적 특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류애정, 2010; 정경희 외, 2010; 방하남, 2011; 양정선 외, 2011; 정경희, 2012)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실태나 노후준비실태 등의 현황을 파악해 개인적으로 미흡한 노후준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연구의 초점은 베이비부머의 규모가 갖는 사회적 파급효과 즉, 거시적인 차원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두어지고 있어 베이비부머의 개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노후준비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며 강조되고 있는 경제적 준비에 대한 연구(여운경 외, 2007; 석재은 외, 2010; 백은영, 2011)이다. 이들은 필요한 은퇴자금을 산정하거나 은퇴자금 준비유형, 준비수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들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대비 경제적 준비수준이 낮으며, 준비유형도 국민연금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중년기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중년층의 노후 계획과 준비에 대한 연구(이지은, 2000; 배문조 외, 2004; 홍성희 외, 2006)와 베이비부머들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방하남, 2011; 서지원, 2012; 이성균, 2011; 조혜진, 2012). 이들은 베이비부머의 내적 다양성에 주목해 교육수준, 직업, 소득의 이질성을 파악하거나 이러한 이질성이 반영된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다양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실제 준비수준이 낮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에 주목해야 하며, 그 원인이나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베이비부머집단 내부의 이질성 중 주목받는 것이 연령의 이질성이다. 베이비부머 집단이 출생연도에 근거한 연령에 의해 규정되어 이전 세대인 부모 세대, 또는 현재 노인세대와 비교되듯이 연령차는 많은 개인차를 함축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내에서도 9년이라는 연령차이가 존재하며, 이들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출생자와 그 이후 1960년대 출생자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로 인한 경험과 의식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연령 차이에 기반을 둔 집단 내 이질성을 분석하는 시도는 베이비부머로 통칭되는 개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며,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연령의 이질성에 초점을 두고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준비정도의 영향요인을 추출하며,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준비하지 못하는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나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베이비부머 집단 내 이질성과 동질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베이비부머의 세대적 특성

베이비부머의 세대적 특성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은 베이비부머 집단이 급속한 경제성장, 민주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역사적·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고 가족의 변화까지 경험하면서 이전 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을 볼 때 현재 노인인구의 30% 이상이 무학인 반면 학교시설의 확충, 고교 평준화 및 대학졸업정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제도의 혜택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31.2%, 고졸 44.0%, 전문대졸 이상 24.8%로 상대적으로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붐세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직업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농어업이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시기적으로 생산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진출할 뿐 아니라 고졸자나 고졸 이하의 학력자도 기능직이나 사무보조직, 판매서비스직의 취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다(이성균, 2011).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역답게 베이비부머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353만원으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고소득가구의 비중이 높으며(나일주 외, 2008), 총자산 규모가 3.3억 원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0년 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보유액이 2.7억원(통계청, 2010)과 비교할 때 베이비부머 가계의 자산보유 수준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주관적인 인식으로서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1.6%로 전체 가구주(57.6%)보다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0).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에 비해 객관적인 자산규모가 크고 주관적 계층의식도 높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서지원(2012)은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세대

의 가계경제구조를 이전세대와 비교한 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전세대와는 구별되는 가계경제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가구소득과 저축이 약 2배 정도로 높았으나 지출규모 역시 크고, 자산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부채규모는 더 컸다.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은 많으나 지출 역시 많고, 자산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평균 자녀수는 2.1명에 불과해, 부모 세대가 평균 5, 6명의 자녀를 두었던 것과 대조된다(통계청, 2010). 이러한 소자녀화는 오히려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자녀교육비 부담이나 결혼 후 부양에 대한 비용과 책임의식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너 및 부모부양에 대한 정경희 외(2010)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의식이 나타난다. 이 조사결과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결혼할 때까지 있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부양에 대해서도 ‘자녀나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부모에게 집안일, 간병이나 수발,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등 경제적 및 도구적 부양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노후에는 ‘부부만 혹은 혼자 살겠다’는 응답률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베이비부머가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수준, 직업, 소득, 자산 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의 책임의식이 강해 두 세대의 부양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세대로 그려진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동질적인 생애사적 경험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베이비부머를 규정하는 연령에 근거해 볼 때 한국

의 베이비부머는 9개 출생 코호트를 포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연령차가 크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던 시기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경제성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초기 베이비부머와 1960년대에 태어난 후기 베이비부머가 경험한 시대적 배경과 그로 인한 생애과정이나 사회적 경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경혜, 2010; 방하남, 2011). 이들은 한국전쟁 후 교육기회가 확대되던 시기에 학교를 다닌 세대로, 특히 4년제 대학교의 진학률은 1970년대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1981년 대학졸업정원정책을 계기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수준이 부모세대에 비해 매우 높아졌지만, 베이비부머 집단 내에서 1955년생 대학 졸업자가 18%에 불과한 것에 비해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의 경우 약 32%까지 증가함으로써 베이비부머 내 교육수준의 편차가 크다(한경혜, 2010).

한편 베이비부머의 정년이 2010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과 노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고용율은 7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실태를 분석한 이성균(2011)은 베이비부머의 직업경로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베이비부머의 학력이 직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졸 이하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산업화에 따른 직업변동의 영향에 취약해 첫 직업 이후 현재까지 직업 이동율이 높았던 반면 대졸자의 경우 현재까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외부의 직업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들은 25%에 불과하다. 이들 중 10%는 연봉 210만 원 이하이고 상위 25%는 3,600만 원으로 편차가 크며, 연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전문·관리직은 가장 낮은 단순노무·농업직의 2.6배에 달해 직종 간 근로소득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50대 이후의 베이비부머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분절화 정도가 매우 높아 소수의 고소득층과 다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내에서도 저학력자의 경우 직종 이동이나 직장 이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 직업의 안정성이 저하되며, 학력의 편차가 생애 직업경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50대와 40대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에서의 입지와 그에 따른 소득수준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여부와 자녀부양부담에 주목한 서지원(2012)은 현재 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은퇴한 집단, 그리고 자녀교육이 끝나지 않아 자녀부양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와 자녀교육을 끝낸 집단의 가계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의향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베이비부머세대 내에서도 경제적 자원관리에 대한 이질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듯 부모세대와는 다른 교육혜택과 다양화된 직업, 소득의 증가 등 경제적 풍요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비추어지거나 내부적으로는 연령별 편차, 개인별 학력의 격차, 직업과 소득의 이질성 등 여러 가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2.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실태

그동안 중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실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중년기와 중년층 대상 연구에서는 은퇴준비를 통해 노후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재적용하는

것을 중년기 발달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 인구의 증가 등의 인구학적 변화와 외환위기 이후 봉급생활자의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증가하면서 중년기의 은퇴가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화되었기 때문이다.

중년기의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여가, 가족생활, 노후주거 등 세부 측면에서의 은퇴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신하연, 1997; 이지은, 2000), 경제적 준비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경제적 상태가 개인의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물질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산도 실물자산 위주(정호성 외, 2010; 석재은 외, 2010) 유동성이 떨어지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계경제구조는 국외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으로 Lusardi 외(2006), Kelly 외(2004)는 미국과 호주의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위한 자산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40대 직장인 중 노후 경제생활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의 노후경제 준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홍성희와 박인숙(2006)은 중년층의 노후 경제적 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경제적 능력, 성별, 금융자산, 가계부채, 연령, 주택자산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을수록 경제적인 준비수준이 높았다. 또한 노후에 경제적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노후준비를 더 하고 있었다. 배문조(2011)는 중년기 남녀의 노후생활준비를 비교한 결과 준비의식은 신체적 준비의식, 경제준비의식, 주거준비의식, 여가준비의식 순으로 높았던 반면 준비행동은 정서적 준비행동, 신체적 준비행동, 여가준비행동, 경제적 준비행동의 순으로 나타나 준비의

식과 준비행동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의 전반적인 준비의식이 높았으며, 신체적 및 정서적 준비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통계」(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2008) 등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세대를 전반기(1959-1955년생)와 후반기(1960-1963년생)로 구분하여 분석한 김영란 외(2010)는 여성의 경우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의 대졸자 비율이 높고 중졸과 초졸 이하의 비율이 낮아져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나, 남성에 비해서는 대졸자 비율이 낮고 중졸이하의 비율이 높아, 베이비부머세대 후반기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은 남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고 보았다. 또 남녀 모두 베이비부머세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전기와 후기의 차이,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정경희 외(2011)의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조사에서 베이비부머는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있으나 준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노후준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수준은 이들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베이비부머의 현재 경제적 자원은 사회적 자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누적된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노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양정선 외, 2011) 결과 노후준비방법의 1순위를 국민연금이라고 한 응답자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사례수를 기준으로 한 종합순위에서도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72.6%로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주된 노후준비방법은 국민연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저축목적은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자녀교육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자녀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자녀부양의 식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녀와 부모 세대 사이에 낀 세대로서 자녀와 부모 부양의 이중 책임을 지는 세대임을 반영하는 것이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의 가족부양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백은영(2011)은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해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기존 인식과 달리 약 80%의 베이비부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은퇴준비의 주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등 의무 가입이 대부분인 공적연금이 다수를 차지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노후준비 및 은퇴준비실태, 이의 영향요인 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이며, 특히 경제적 준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었다.

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영향요인

베이비부머 집단 내에서 연령에 따른 노후생활설계 또는 노후준비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년기 대상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이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배문조 외(2004)의 연구에서 중년남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를 대비한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성희 외(200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이 높으며,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은퇴와 노년기에 근접하게 되므로 노후계획과 준비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은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

이 남성보다 일찍 취업하는 경향이 있어(배문조 외, 2004), 은퇴준비를 남성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으며, 평균수명이 더 길어 필요성도 더 클 수 있다. 배문조(2011)의 중년남성과 여성의 노후생활준비인식 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준비의식이 높았다. 반면, 홍성희 외(2006)의 중년기의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 경제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지하며, 실제 준비수준도 여성에 비해 높았다. 노후준비 방법으로서 김영란 외(2010)는 베이비부세대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률은 45.2%로, 80.5%인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백은영(2011)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 예·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 등을 주된 은퇴준비방법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율이 남성에 비해 낮고, 임의가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여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지적한 바 있다.

교육수준은 직업과 소득의 기반으로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의식 및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은영(2001)은 은퇴준비를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중 절반이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선 외(2011)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경제활동 희망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노후준비를 위해 은퇴 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확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 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경기도 거주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실태를 다룬 양정선 외(2011)는 도시거주자에 비해 농촌이나 도농 지역 거주자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경희 외(2010)는 베이비부머가구 중 동부 거주자의

월평균소득이 444.9만원으로 읍면부보다 약 124만원 높으며, 자산규모 역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거주지역에 따라 현재 및 미래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이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 인식과 행동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으며(정호성 외, 2010), 노후에 건강악화를 가장 우려하는 만큼 성공적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건강으로 생각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의료비 준비행동을 분석한 조혜진(2012)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후의료비에 대해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소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실제로 더 건강하고, 의료비 준비를 더 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 베이비부머의 평균기대수명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장수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건강의 중요성 인식은 건강과 관련된 노후준비의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규정하고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요인으로서 은퇴 후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문조 외(2004)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으며, 이지은(2000)도 월평균소득과 총자산이 노후경제생활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홍성희 외(2006)의 연구에서는 주택자산 및 금융자산 등 자산이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과 노후대비저축여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백은영(2011)의 은퇴준비여부 분석결과에서는 소득과 자산, 주택소유여부,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 등 경제적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충족해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경희 외(2011)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의 노후계획과 준비에 소득수준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노후준비가 더

양호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이며 종사상의 지위가 안정적인수록 노후설계 컨설팅이용 의향을 보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노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자산 등의 객관적 경제상태 뿐 아니라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 역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지은(2000)은 중년남성들의 현재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가 노후경제생활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홍성희 외(2006)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조사에서 이들은 자녀와 노부모 양 세대에 대한 높은 부양책임의식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호성 외(2010)는 소비지출 내역 중 부모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 아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자신은 자식에게 덜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신연희 외(2010)는 베이비부머가 흔히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는 대표적인 모습을 부양과 관련된 것에서 찾고 있다. 즉, 이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중심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세대의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부모부양 부담은 많고 자녀의 부양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비동거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은 연소득 대비 14.6%이며, 자녀부양부담은 월 생활비의 14.5%(대학생 자녀 기준)에서 17.5%(고등학생 자녀 기준)에 달해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특히 더 큰 것으로 드러난다(방하남 외, 2010). 또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경희 외(2010)는 50.2%의 베이비부머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이중 46.5%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정경희 외의 2011년도 조사에서는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에 대해 베이비부

머의 41.5%가 ‘결혼할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어 자녀부양기간이 길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세대의 학업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후자금으로 들어 가야 할 돈이 자녀부양비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에 대해 마땅한 준비가 없으면서도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자녀부양이라는 통계치를 보더라도 장기화된 자녀부양부담과 책임의식이 노후 경제적 준비 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생각하는 노후생활의 중요요인이나 우선순위가 노후생활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나 실태조사는 없으나 정경희 외(2010)의 조사에서는 베이비부머가 생각하는 성공적 노후를 위한 중요 요인으로 건강(45.1%), 경제적 안정과 여유(40.6%)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중 전기세대와 후기세대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노후설계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 노후준비수준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집단 간 다양성과 이질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 노후생활준비정도,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준비

정도의 차이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 및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1) 독립변수

(1)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월평균가계소득, 맞벌이여부, 자녀수를 선정하였다.

(2)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노부모부양책임의식, 자녀부양책임의식, 노후중요순위 등을 선정하였다. 노부모부양책임의식은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나이가 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의 3개 항목(5점 척도)으로 구성하였다. 자녀부양책임의식은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의 3개 항목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	노후 직업설계, 여가설계, 재무설계, 은퇴노후설계 4개영역의 필요성 인식
노후생활 준비 정도	1=전혀 필요없다 3=보통이다 5=매우 필요하다 노후 직업설계, 여가설계, 재무설계, 은퇴노후설계 4개 영역의 준비정도
노후설계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 차이	1=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3=보통이다 5=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노후 직업설계, 여가설계, 재무설계, 은퇴노후설계 4개 영역의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노후생활 준비 정도)
독립변수	
성별(여성) ^D	1=남성 0=여성
연령	만 나이
교육수준	1=무학/초중퇴 2=초졸/중중퇴 3=중졸/고중퇴 4=고졸 5=대졸 이상
거주지역(읍면지역) ^D	1=대도시 2=중소도시 3=읍면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대체로 좋음 5=매우 좋음
주관적 경제수준	1=하층 2=중하류층 3=중류층 4=중상류층 5=상류층
월평균 가계소득	지난 1년간 가족의 총소득
맞벌이 여부(홀벌이) ^D	1=맞벌이 부부 0=홀벌이 부부
자녀수	자녀(아들과 딸)의 수
노부모부양책임 의식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자녀부양책임 의식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노후중요순위(건강) ^D	1=경제력 2=여가 3=건강

^D ; Dummy variable

(5점 척도)으로 구성하였다. 노후중요순위는 노후 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력, 여가, 건강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은 ‘전혀 필요 없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필요하다’의 5점까지로 측정하였으며, 노후생활 준비 정도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의 1점에서부터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의 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는 노후설계를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현재 준비된 노후생활과의 차이로 산정하였다.

각 종속변수는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후 직업설계는 은퇴 후 직업계획 및 준

비, 여가설계는 여가와 시간계획, 재무설계는 경제적 필요와 준비, 은퇴노후설계는 은퇴 시기 및 은퇴 후 생활준비를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의 측정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자료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CAPI 방식의 일대 일 방문면접조사에 의해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집되었다(조희금 외, 2010). 원 자료는 전국 2,500개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응답자 총 4,754명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에 맞는 1955(만55세)년생부터 1963년생

(만 47세) 중에서 무배우자를 제외한 8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2차 가중치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에 2차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 준비정도, 필요성과 준비도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해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중 현재 50대에 해당되는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인 1955년부터 1959년까지 출생자는 397명(48.8%), 현재 40대 후반에 해당되는 후기베이비부머 집단인 1960년부터 1963년 출생자는 417명(51.2%)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 구성은 전기 베이비부머 중 남성 48.9%, 여성 51.1%, 후기 베이비부머 중 남성 46.3%, 여성 53.7%로, 후기 베이비부머의 여성비율이 약간 높았다. 교육수준은 전기가 후기보다 낮아 초등학교 졸업이자가 16.9%인데 반해 후기는 3.0%이며, 전기 고졸 이상자가 64.1%에 비해 후기는 90.2%였다. 따라서 후기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방하남, 2010; 한경혜, 2010; 이성균, 2011)에서 후기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이 고교평준화, 대학졸업정원제 등의 영

향으로 전기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거주지역은 전기베이비부머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37.8%로 후기의 28.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대도시 거주자는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기와 후기 대상자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해 전기 베이비부머 중 자신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52.7%였으며,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42.4%였다. 반면 후기집단 중에서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7.1%, 중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3.1%로 전기에 비해 주관적 경제상태를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월평균가계소득 역시 후기 베이비부머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전기 베이비부머가계의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8%인데 반해 후기는 12.9%로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여부는 후기 베이비부머 세대 중 36.0%가 맞벌이가계로, 전기 세대의 25.3%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후기베이비부머 집단이 전기에 비해 맞벌이부부의 비율이 높으며, 따라서 가계소득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제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에서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이라는 집단이 약 30%, 취미나 여가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10% 미만으로 두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생존여부(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후기베이비부머 집단의 부모생존비율이 69.1%로, 연령이 많은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의 49.4%보다 높았다. 또한 부모가 생존한 경우 부모와 동거비율을 볼 때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의 22.4%, 후기베이비부머 집단의 15.6%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어, 부모생존비율은 후기집단에서 높으나 부모동거비율은 전기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무의 경우 자녀가 없는 집단의 비율이 전기집단은 6.5%인 반면 후기집단은 4.8%로 낮았다. 전기베이비부머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14)

전기 베이비부머(50대)(n=397)				후기 베이비부머(40대)(n=417)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194	48.9	성별	남성	193	46.3
	여성	203	51.1		여성	224	53.7
교육수준	무학	12	3.1	교육수준	무학	6	1.4
	초등학교졸업	55	13.8		초등학교졸업	7	1.6
	중학교졸업	74	18.7		중학교졸업	28	6.8
	고등학교졸업	190	47.9		고등학교졸업	250	60.0
	대학교졸업 이상	66	16.5		대학교졸업 이상	126	30.2
거주지역	대도시(특/광역시)	179	45.2	거주지역	대도시(특/광역시)	195	46.7
	중소도시	68	17.1		중소도시	103	24.7
	읍면지역	150	37.8		읍면지역	119	28.5
건강상태	비건강	41	10.3	건강상태	비건강	35	8.4
	보통	81	20.4		보통	95	22.8
	건강	275	69.3		건강	287	68.8
주관적 경제수준	하층	209	52.7	주관적 경제수준	하층	196	47.1
	중류층	168	42.4		중류층	180	43.1
	상류층	19	4.9		상류층	41	9.8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95	23.8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54	12.9
	200-299만원	95	23.9		200-299만원	114	27.3
	300-399만원	83	20.8		300-399만원	82	19.7
	400-499만원	42	10.7		400-499만원	69	16.5
	500만원 이상	82	20.8		500만원 이상	98	2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100	25.3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150	36.0
	홀벌이 부부	297	74.7		홀벌이 부부	267	64.0
노후중요순위	경제력	245	61.6	노후중요순위	경제력	253	60.7
	취미·여가	35	8.9		취미·여가	40	9.6
	건강	117	29.5		건강	124	29.8
부모생존여부	부모 생존	196	49.4	부모생존여부	부모 생존	288	69.1
	부모 사망	201	50.6		부모 사망	129	30.9
부모동거여부 (부모 생존의 경우) 부모 별거	부모 동거	44	22.4	부모동거여부 (부모 생존의 경우)부모 별거	부모 동거	45	15.6
	부모 별거	152	77.6		부모 별거	243	84.4
자녀유무	자녀 없음	26	6.5	자녀유무	자녀 없음	20	4.8
	자녀 있음	371	93.5		자녀 있음	397	95.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녀수(명)		1.746	.809	자녀수(명)		1.969	.729
노부모부양 책임의식(15점)		10.362	1.830	노부모부양 책임의식(15점)		10.567	1.860
자녀부양 책임의식(15점)		9.906	9.906	자녀부양 책임의식(15점)		9.688	1.706

집단의 자녀수는 평균 1.746명으로 후기집단의 1.969명보다 약간 적었으며, 노부모부양책임의식은 후기 집단에서, 자녀부양책임의식은 전기 집단에서 더 높았다(표 2 참조).

2.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노후생활준비,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 정도의 차이에

<표 3>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 노후생활준비정도, 인식과 준비의 차이에 대한 집단 간 차이

(N=814)

		전기 베이비부머(50대)(n=397)		후기 베이비부머(40대)(n=417)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노후설계필요성 인식	직업설계	2.003	1.382	1.952	1.367	N.S.
	여가설계	3.192	1.243	3.295	1.229	N.S.
	재무설계	3.364	1.249	3.420	1.256	N.S.
	은퇴노후설계	4.056	.824	3.867	1.049	2.552**
노후생활준비	직업설계	1.684	1.710	1.650	1.025	N.S.
	여가설계	2.436	1.546	2.565	1.066	N.S.
	재무설계	2.461	1.503	2.574	1.048	N.S.
	은퇴노후설계	2.704	1.223	2.791	1.061	N.S.
노후설계필요성 인식과 준비 정도의 차이	직업설계	.319	1.056	.302	.996	N.S.
	여가설계	.756	1.172	.730	1.127	N.S.
	재무설계	.903	1.252	.847	1.222	N.S.
	은퇴노후설계	1.352	1.244	1.076	1.323	3.023**

**p< .01

대한 집단 간 비교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 준비, 필요성과 준비의 차이를 t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 중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은퇴노후설계로(p<.01), 전기 베이비부머 집단이 후기 베이비부머 집단보다 은퇴노후설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은퇴와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설계의 하위영역 중 직업계획의 필요성은 연령이 많은 전기집단에서 약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여가와 재무설계의 필요성은 후기집단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생활 준비정도는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직업설계의 경우만 전기

집단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여가, 재무, 은퇴노후설계에 대한 준비는 후기집단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준비 정도의 차이는 전기 베이비부머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은퇴노후설계의 경우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준비수준은 낮았다(p<.01). 이는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이 후기 베이비부머 집단에 비해 노후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준비는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에서는 노후설계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관한 세부적인 빈도를 정리하였다. 노후설계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를 빈도를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값을 가지는 경우는 설계 필요성에 비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이며, 0은 필요성과 같은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의 값은 필요성은 인식하나 현재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경우로, 값이 높을 수록 준비가 안 된 경우이다.

<표 4>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준비의 차이에 대한 빈도 분포

(N=814)

			전기 베이비부머(50대)(n=397)			후기 베이비부머(40대)(n=417)		
			빈도	%	소계 %	빈도	%	소계 %
노후 직업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 정도의 차이	준비가 잘 되어있다	-4	0	0	7.4	3	0.7	7.4
		-3	1	0.3		1	0.2	
		-2	5	1.3		12	2.9	
		-1	23	5.8		15	3.6	
	필요성과 준비의 차이 없다	0	276	69.5	69.5	306	73.6	73.6
필요성 높게 인식하나 준비정도 낮다	1	30	7.6	23.3	47	11.3	19.0	
	2	32	8.1		17	4.1		
	3	27	6.8		9	2.2		
	4	3	0.8		6	1.4		
노후 여가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 정도의 차이	준비가 잘 되어있다	-2	5	1.3	9.9	4	1.0	6.3
		-1	34	8.6		22	5.3	
	필요성과 준비의 차이 없다	0	149	37.7	37.7	170	40.8	40.8
	필요성 높게 인식하나 준비정도 낮다	1	99	25.1	52.4	127	30.5	52.9
		2	76	19.2		67	16.1	
3		28	7.1	19		4.6		
4		4	1.0	8		1.8		
노후 재무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 정도의 차이	준비가 잘 되어있다	-3	0	0	8.9	1	0.2	8.1
		-2	5	1.3		1	0.2	
		-1	30	7.6		32	7.7	
	필요성과 준비의 차이 없다	0	140	35.2	35.2	161	38.6	38.6
	필요성 높게 인식하나 준비정도 낮다	1	94	23.7	55.9	108	25.9	63.3
2		83	20.9	73		17.6		
3		35	8.8	28		6.7		
4		10	2.5	13		3.1		
노후 은퇴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 정도의 차이	준비가 잘 되어있다	-3	1	0.3	3.3	1	0.2	5.9
		-2	4	1.0		1	0.2	
		-1	8	2.0		23	5.5	
	필요성과 준비의 차이 없다	0	87	21.9	21.9	147	35.2	35.2
	필요성 높게 인식하나 준비정도 낮다	1	120	30.2	74.8	104	24.9	58.9
2		107	27.0	77		18.4		
3		49	12.3	43		10.3		
4		21	5.3	22		5.3		

직업설계에 대한 필요성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의 분포를 보면, 전기집단 중 7.4%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 69.5%는 ‘필요성과 준비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했으며, 23.3%는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준비정도는 낮았다. 후기집단의 7.4%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 73.6%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19.0%가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준비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후기집단이 상대적으로 젊어 현재 직업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따라서 경제적 상태가 더 양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후의 여가설계에 대한 필요성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는 전기집단의 9.9%, 37.7%, 52.4%가 각각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차이 없다’, ‘필요성에 비해 준비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집단의 경우 6.3%, 40.8%, 52.9%가 각각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차이 없다’, ‘필요성에 비해 준비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설계의 경우 전기집단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고 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후기집단은 ‘차이가 없음’ 또는 ‘필요성에 비해 준비정도가 낮은’ 비율이 약간 높았다.

재무설계에 대한 필요성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기집단 중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차이 없음’, ‘필요성에 비해 준비정도는 낮다’는 비율이 각각 8.94%, 35.2%, 55.9%이었으며, 후기집단의 경우 각각 8.1%, 38.6%, 63.3%였다. 즉, 전기집단이 후기집단에 비해 재무설계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퇴노후설계에 대해 전기집단의 3.3%, 후기집단의 5.9%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한 반면, 전기집단의 74.8%, 후기집단의 58.9%가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준비정도는 낮다’고 함으로써, 전기집단의 은퇴노후설계 준비수준이 후기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기집단의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이 높아 은퇴노후설계의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후설계에 대해 연령이 많은 전기집단에서는 직업설계 및 은퇴노후설계에 대한 준비부족이 심각하며, 후기집단에서는 여가설계와 재무설계의 준비가 부족한 현상을 볼 수 있다.

3.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전기(50대)베이비부머와 후기(40대)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심리적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6>.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중 직업설계의 필요성은 노후중요순위(경제력)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노후에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직업설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월평균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성별이 남성일 때 노후를 위한 직업계획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여가설계 필요성은 노부모부양책임의식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건강보다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여가설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는 노후중요순위를 건강보다는 여가에 두는 집단이, 중소도시 거주자가 읍면지역거주자보다 여가설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여가설계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5.1%였다.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재무설계 필요성에는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거주지역이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인 경우, 노부모부양책임의식이 높을수록, 맞벌이부부일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재무설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노후중요

순위를 경제력에 둔 집단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부양책임의식이 낮을수록 재무설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주관적 경제수준, 월평균가계소득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설계의 필요성은 경제수준이나 소득의 영향보다는 부양책임의식이나 교육수준, 거주지역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은퇴노후설계 필요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중 직업설계의 필요성 인식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쳐,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자녀부양책임을 낮게 인식할수록, 남성이 노후를 위한 직업설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여가설계 필요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후중요순위로, 노후에 여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여가설계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대도시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가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재무설계 필요성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이 읍면지역 거주집단보다 더 많이 인식하였다. 다음으로는 노후중요순위를 건강에 두는 집단이 여가에 두는 집단보다, 성별이 남성인 경우, 그리고 노부모부양책임을 낮게 인식할수록 재무설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은퇴노후설계의 필요성은 자녀부양책임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도시 거주자와 중소도시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노부모부양책임의식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은퇴노후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설계 필요성은 전기집단에서는 교육수준과 자녀수, 노후중요순위(경제력)가 중요 영향요인인 반면, 후기집단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역, 노후중요순위(건강)가 중요요인이었다. 전기베이비부머들은 노후설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노후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이들의 노후부담은 자녀교육 및 결혼 등의 부양부담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노후에 건강보다 경제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전기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집단의 경우 남성이거나 대도시 거주자, 노후중요순위를 건강에 두거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수준이 높았다. 이처럼 건강상태의 영향이 부각되는 것은 노년기에는 유병율이 높고 만성질환이 많아져 노년기 건강과 의료비지출이 노후에 발생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조혜진, 2012). 또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는 달리 교육수준과 맞벌이어부가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월평균가계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도 1개 하위영역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후기베이비부머는 교육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직업, 소득으로 연결되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성별, 건강상태, 거주지역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기초하여 노후설계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

〈표 5〉 전기(50대)베이비부머 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관한 중회귀분석

(N=397)

	직업설계 b(β)	여가설계 b(β)	재무설계 b(β)	은퇴노후설계 b(β)
성별(여성)	.458(.158)*	.017(.006)	.002(.001)	-.159(-.074)
교육수준	.042(.104)	.081(.211)***	.079(.201)***	.049(.153)*
거주지역(대도시)	.179(.061)	.167(.060)	.475(.168)**	.130(.061)
거주지역(중소도시)	.162(.042)	.416(.114)*	.611(.163)**	.068(.024)
주관적 건강상태	-.115(-.063)	-.065(-.038)	-.185(-.104)*	-.034(-.025)
주관적 경제수준	-.103(-.054)	-.064(-.036)	-.036(-.020)	-.199(-.142)**
월평균가계소득	-.065(-.168)**	.038(.103)	.018(.047)	-.005(000)
맞벌이여부(홀벌이)	-.054(-.016)	.248(.078)	.467(.144)**	.082(.033)
자녀수	.302(.168)***	.179(.106)*	.225(.130)**	.134(.102)*
노부모부양책임의식	.021(.027)	.198(.264)***	.112(.145)**	.046(.079)
자녀부양책임의식	.049(.059)	.024(.030)	-.079(-.097)*	.025(.041)
노후중요순위(경제력)	.598(.200)***	.597(.211)***	.351(.122)*	.045(.021)
노후중요순위(여가)	.063(.012)	.674(.140)**	.384(.080)	.282(.075)
상수	1.239***	1.134***	1.680***	3.127***
F-value	3.790***	11.170***	7.681***	2.774***
R ² (Adj. R ²)	.130(.116)	.276(.251)	.207(.180)	.105(.076)

*p< .05 **p< .01 ***p< .001

〈표 6〉 후기(40대)베이비부머 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관한 중회귀분석

(N=417)

	직업설계 b(β)	여가설계 b(β)	재무설계 b(β)	은퇴노후설계 b(β)
성별(여성)	.277(.101)*	.189(.076)	.356(.141)**	.250(.119)*
교육수준	-.0119(-.020)	-.046(-.097)	.031(.064)	-.031(-.080)
거주지역(대도시)	.025(.009)	.328(.133)*	.774(.307)***	.410(.195)**
거주지역(중소도시)	.041(.013)	-.252(-.095)	.622(.213)***	.337(.138)*
주관적 건강상태	-.243(-.133)**	-.005(-.003)	.033(.021)	.026(.019)
주관적 경제수준	.068(.039)	-.100(-.064)	-.094(-.059)	-.241(-.180)**
월평균가계소득	.015(.037)	.041(.117)*	.024(.065)	.008(.029)
맞벌이여부(홀벌이)	-.112(-.058)	.114(.044)	-.153(-.058)	-.114(-.058)
자녀수	.088(.046)	.165(.096)*	.015(.009)	.093(.063)
노부모부양책임의식	-.036(-.049)	-.025(-.038)	-.086(-.127)**	-.072(-.128)**
자녀부양책임의식	-.099(-.123)**	.033(.049)	.035(.048)	.122(.199)***
노후중요순위(경제력)	.024(.009)	.053(.036)	-.187(-.077)	-.062(-.032)
노후중요순위(여가)	-.471(-.101)	-1.123(-.269)***	-1.187(-.278)***	.004(.001)
상수	4.820***	2.433***	2.985***	3.048***
F-value	3.241***	5.112***	7.103***	4.483***
R ² (Adj. R ²)	.094(.066)	.143(.115)	.222(.197)	.130(.103)

*p< .05 **p< .01 ***p< .001

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표 8>.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직업설계 준비정도의 경우 노후에 여가 또는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노후직업설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녀부양 책임의식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의 직업설계 준비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여가설계 준비정도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한 노후에 건강보다 여가 또는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노부모부양책임의식이 높을수록 노후여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6.6%였다.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재무설계 준비는 자신의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거주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부양책임의식이 높을수록, 노후중요순위를 여가 또는 경제력에 두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은퇴노후설계의 준비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노후의료비에 국한시켜 노후준비행동을 조사한 조혜진(2012)의 분석결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의료비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현재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준비도가 높았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 직업설계준비정도는 맞벌이부부일 때 홀벌이 부부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여가설계 준비정도는 대도시 거주집단이,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

음으로는 노후에 여가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들이 여가생활의 준비를 잘 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았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재무설계 준비는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거주집단이, 노후중요순위가 건강인 집단이 여가인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7.3%였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은퇴노후설계 준비는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노후에 건강보다는 여가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후 여가생활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후기 베이비부머의 은퇴노후설계준비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배문조(2011)의 중년기 연구에서 노후에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을 보이는 성향의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전후기 베이비부머집단 모두에서 주관적 경제수준과 월평균가계소득이 노후생활준비정도에 강한 정적 영향을 나타낸다. 이는 홍성희 외(2006)의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적 능력이, 백은영(2011), 정경희 외(2011)의 연구에서 소득이 노후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집단에서는 노부모부양책임의식과 자녀부양책임의식, 노후중요순위가 노후설계 준비정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후기집단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표 7〉 전기(50대)베이비부머 집단의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관한 중회귀분석

(N=397)

	직업설계 b(β)	여가설계 b(β)	재무설계 b(β)	은퇴노후설계 b(β)
성별(여성)	.195(.097)*	.001(.000)	.031(.027)	.117(.055)
교육수준	.020(.070)	.052(.166)**	.039(.125)*	.018(.062)
거주지역(대도시)	.039(.019)	.190(.084)	.311(.139)**	.170(.080)
거주지역(중소도시)	.080(.030)	.155(.052)	.368(.124)**	.368(.132)**
주관적 건강상태	-.103(-.081)	.061(.043)	.001(.001)	.193(.144)**
주관적 경제수준	.001(.001)	.244(.166)***	.342(.234)***	.317(.130)***
월평균가계소득	-.017(-.062)	.073(.241)***	.059(.199)***	.039(.139)*
맞벌이여부(홀벌이)	-.055(-.024)	-.149(-.058)	-.118(-.049)	-.081(-.033)
자녀수	.072(.058)	-.034(-.024)	-.031(-.023)	-.104(-.080)
노부모부양책임의식	.018(.033)	.085(.137)**	.076(.125)**	.013(.022)
자녀부양책임의식	.074(.128)*	.012(.019)	-.007(-.010)	.000(.001)
노후중요순위(경제력)	.388(.188)**	.276(.119)**	.270(.118)*	.008(.004)
노후중요순위(여가)	.691(.196)***	.627(.159)***	.570(.145)**	.110(.030)
상수	4.549***	5.116***	3.306***	1.660***
F-value	6.711***	11.982***	11.017***	9.900***
R ² (Adj. R ²)	.186(.158)	.290(.266)	.273(.248)	.200(.173)

*p< .05 **p< .01 ***p< .001

〈표 8〉 후기(40대)베이비부머 집단의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관한 중회귀분석

(N=417)

	직업설계 b(β)	여가설계 b(β)	재무설계 b(β)	은퇴노후설계 b(β)
성별(여성)	.151(.073)	.124(.058)	.114(.043)	-.189(-.080)
교육수준	.006(.014)	.043(.098)*	.034(.062)	.007(.015)
거주지역(대도시)	.234(.114)	.374(.175)**	.427(.203)***	.034(.024)
거주지역(중소도시)	.324(.136)*	.161(.065)	.353(.145)**	.063(.026)
주관적 건강상태	-.043(-.031)	.124(.087)	.146(.104)*	.175(.123)**
주관적 경제수준	.001(.000)	.215(.159)**	.305(.228)***	.339(.251)***
월평균가계소득	.028(.060)	.047(.154)**	.073(.244)***	.081(.269)***
맞벌이여부(홀벌이)	.337(.158)**	.037(.015)	-.112(-.040)	-.099(-.040)
자녀수	-.007(-.005)	.120(.081)	-.056(-.030)	-.029(-.017)
노부모부양책임의식	-.002(-.004)	-.010(-.017)	-.022(-.035)	-.070(-.010)
자녀부양책임의식	.030(.051)	.045(.055)	.046(.059)	.002(.003)
노후중요순위(경제력)	-.034(-.016)	-.134(-.062)	-.168(-.062)	-.198(-.087)
노후중요순위(여가)	.044(.013)	-.548(-.151)**	-.439(-.123)**	.513(.142)**
상수	1.770**	1.070***	.217***	1.360***
F-value	4.065***	6.407***	8.186***	12.799***
R ² (Adj. R ²)	.117(.088)	.228(.202)	.296(.273)	.295(.272)

*p< .05 **p< .01 ***p< .001

5.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실제 노후설계 준비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표 10>.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직업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로, 자녀가 많을수록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준비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노후에 여가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를 위한 직업계획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준비수준은 낮았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3.6%였다.

전기 집단의 여가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노부모부양책임의식이 높을수록,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노후중요순위를 건강보다는 경제력에 두는 집단에서 필요성 인식과 준비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재무설계 영역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나 준비정도는 낮았다. 또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부양책임의식이 낮을수록 재무설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준비정도는 낮았다.

전기 집단의 은퇴노후설계의 영역에서는 경제수준인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여성인 경우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정도는 낮았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 직업설계의 필요

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는 홀벌이부부인 경우, 노후에 여가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읍면지역 거주자, 자녀부양책임을 낮게 인식할수록 더 커서 노후를 위한 직업계획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준비정도는 낮았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 여가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는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노후에 여가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 재무설계의 영역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노후에 여가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남성이,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노부모부양책임을 낮게 인식할수록 재무설계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였으나 준비수준은 낮았다.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은퇴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관적 경제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커서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대도시 거주자가, 자녀부양책임의식이 높을수록, 노후 여가보다 건강을 중요시할 경우 은퇴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실제 준비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5.0%였다.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기와 후기집단에서 모두 주관적 경제수준이었다. 전기와 후기 집단에서 차이를 보인 영향요인으로는 전기집단의 경우 맞벌이여부나 자녀수가 영향을 미쳐 홀벌이이며 자녀가 많은 가계의 노후설계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준비수준은 낮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이 노후설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여운경 외(2007)의 연구에서 자녀부양비가 은퇴준

〈표 9〉 전기(50대)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관한 중회귀분석

(N=397)

	직업설계 b(β)	여가설계 b(β)	재무설계 b(β)	은퇴노후설계 b(β)
성별(여성)	.263(.121)*	.017(.007)	-.059(-.023)	-.275(-.108)*
교육수준	.023(.074)	.029(.088)	.040(.115)	.027(.076)
거주지역(대도시)	.140(.064)	-.023(-.010)	.164(.065)	-.045(-.018)
거주지역(중소도시)	.082(.028)	.262(.084)	.243(.073)	-.301(-.088)
주관적 건강상태	-.011(-.008)	-.126(-.085)	-.186(-.117)*	-.227(-.140)**
주관적 경제수준	-.104(-.073)	-.308(-.201)***	-.378(-.231)***	-.519(-.309)***
월평균가계소득	-.049(-.167)**	-.035(-.110)	-.042(-.125)*	-.039(-.115)
맞벌이여부(홀벌이)	.001(.001)	.397(.147)**	.585(.203)***	.163(.055)
자녀수	.231(.171)***	.213(.147)**	.256(.166)***	.238(.151)**
노부모부양책임의식	.003(.006)	.114(.177)***	.036(.052)	.033(.048)
자녀부양책임의식	-.024(-.039)	.012(.017)	-.073(-.102)*	.025(.034)
노후중요순위(경제력)	.210(.094)	.321(.133)**	.081(.032)	.037(.014)
노후중요순위(여가)	-.628(-.164)**	.047(.011)	-.176(-.040)	.172(.038)
상수	2.003***	1.817***	2.010***	2.899***
F-value	8.903***	6.609***	6.601***	9.013***
R ² (Adj. R ²)	.297(.236)	.193(.166)	.183(.156)	.235(.209)

*p< .05 **p< .01 ***p< .001

〈표 10〉 후기(40대)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관한 중회귀분석

(N=417)

	직업설계 b(β)	여가설계 b(β)	재무설계 b(β)	은퇴노후설계 b(β)
성별(여성)	.135(.068)	.065(.020)	.355(.145)**	.349(.131)**
교육수준	-.017(-.043)	-.020(-.044)	.008(.016)	-.029(-.054)
거주지역(대도시)	-.223(-.104)	-.050(-.023)	.348(.142)*	.360(.136)*
거주지역(중소도시)	-.283(-.122)*	.181(.072)	.268(.094)	.274(.089)
주관적 건강상태	-.200(-.150)**	-.168(-.112)*	-.101(-.062)	-.149(-.084)
주관적 경제수준	-.086(-.069)	-.316(-.220)***	-.399(-.257)***	-.579(-.344)***
월평균가계소득	-.014(-.048)	-.005(-.017)	-.049(-.141)**	-.056(-.149)**
맞벌이여부(홀벌이)	-.374(-.179)***	.082(.037)	-.098(-.039)	-.007(-.002)
자녀수	-.108(-.074)	.023(.016)	.030(.018)	.096(.056)
노부모부양책임의식	.064(.071)	-.015(-.025)	-.064(-.097)*	-.063(-.089)
자녀부양책임의식	-.068(-.116)*	-.012(-.020)	.009(.013)	.091(.118)**
노후중요순위(경제력)	.058(.028)	.164(.074)	-.018(-.007)	.041(.015)
노후중요순위(여가)	-.515(-.152)**	-.575(-.151)**	-.748(-.180)***	-.510(-.113)*
상수	3.050***	2.775***	2.944***	3.150***
F-value	3.794***	6.362***	8.508***	10.686***
R ² (Adj. R ²)	.138(.109)	.133(.105)	.217(.192)	.274(.250)

*p< .05 **p< .01 ***p< .001

비의 장애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많은 자녀로 인해 노후설계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 자녀교육 및 부양비용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노후준비의 여력이 없는 것이다. 반면 후기집단은 노후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과 대도시 거주자들이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수준은 낮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 베이비부머집단과 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 내의 이질성과 공통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 중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은퇴노후설계로,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이 후기 집단보다 은퇴노후설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는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여, 후기 집단에 비해 은퇴노후설계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준비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이 후기집단보다 노후대비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교육수준과 자녀수, 노후중요순위(경제력)가 강한 영향요인인 반면, 후기집단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역, 노후중요순위(건강)가 중요 요인이었다. 자녀를 많이 둔 전기베이비부머들의 노후설계는 자녀교육과 결혼 등 자녀부양을 위한 비용 및 심리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생활의 중요순

위 중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전기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앞두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집단의 경우 남성과 대도시 거주자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때, 후기베이비부머는 교육수준, 직업,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노후설계필요성 인식수준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셋째, 노후생활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기집단 모두에서 주관적 경제수준과 월평균가계소득이었다. 즉, 소득수준이 높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기집단에서는 노부모부양책임의식과 자녀부양책임의식이 노후설계 준비정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후기집단에서는 노부모나 자녀부양책임의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전기집단에서는 노후중요순위를 여가나 경제력에 두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수준이 더 높았던 반면 후기집단에서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수준이 더 높았다.

넷째, 노후설계의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전·후기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특히 객관적 경제수준인 소득보다 주관적인 경제수준 인식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의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노후설계 필요성에 비해 준비정도가 낮았다. 전기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영향요인은 자녀수와 맞벌이여부로, 홀벌이이며 자녀가 많은 베이비부머가 노후설계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준비수준은 낮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기집단에서는 노후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 필요성과 준비수준의 격차가 더 컸다. 즉, 전기집단의 자녀부양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 집단은 노후설계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베이비부머 집단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보여준다. 첫째,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은 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교육수준에 의한 영향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성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효과 및 정보수집능력이 있거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기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녀수의 영향이 전기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들의 자녀들이 대학교육 중이거나 취업, 결혼 등 중요한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으며, 자녀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부양 부담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후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노후중요순위도 전기집단과 후기집단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기집단에서는 노후중요순위를 건강보다 경제력 또는 여가에 두는 사람들이 더 노후설계를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후기집단에서는 건강에 두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아 곧 은퇴를 앞둔 전기베이비부머와 젊은 후기베이비부머들이 각각 다른 개인적 특성과 요구에 의해 노후설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노후생활준비정도에서 나타난 두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노부모부양책임의식 및 자녀부양책임의식이 노후생활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후기집단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나이가 더 많은 전기집단의 경우 부모와 자녀들의 연령도 더 많아 부양부담이 더 클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자신의 노후생활준비에서도 이들에 대한 부양책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기 베이비부머집단의 경우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서 중요한 변수였던 자녀수가 노후

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준비정도의 차이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기집단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전기집단과 달리 후기집단에서는 노후중요순위를 건강에 두는 사람들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정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설계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 준비하는 행동의 차이에서도 전기집단과 후기집단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후생활준비정도,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준비정도의 차이에서 전기집단과 후기집단의 공통점이 나타난다. 우선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던 주관적 경제수준과 월평균가계소득이 두 집단의 노후생활준비정도에 각각 강한 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세대를 막론하고 실질적인 노후준비행동인 노후생활준비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득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홍성희 외, 2006; 백은영, 2011; 정경희 외, 2011)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노후준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관된 경향이다.

또한 전기집단과 후기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에 각각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자녀수나 노후중요순위(건강)는 노후생활준비정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인식 차원인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실제 행동 차원의 노후생활준비정도는 이들에게 달리 인지되며, 다른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겠다.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집단의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준비정도의 차이에 주관적 경제수준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는 자신의 노후설계를 객관적인 소득과 자산의 포트폴리오 보다는 주관적인 계층의식이나 준거집단과의 비교 수준 등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전·후기 집단을 비교결과에

서 나타난 집단 간 이질성과 공통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위한 제언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의 노후설계에서 나타난 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다. 특히 경제적 요인이 노후생활준비, 그리고 필요성 인식과 준비도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실제 노후설계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경제적 요인이며, 이는 연령차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후설계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직업설계, 여가설계, 은퇴설계 등 다양한 영역의 설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의 노후설계 하위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더 필요한 노후 재취업이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의 차이점 중 전기집단에서 두드러진 요인이었던 자녀수의 영향이다. 자녀가 많은 전기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는 많이 하지 못해 의식과 행동의 격차를 보였다.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많아 부양부담이 크다면 부양책임의식과 관련시켜 자녀부양을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의 계획, 비용부담의 설계, 정서적 지원방식의 설계 등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초점을 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노후중요순위를 건강에 두거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쁜 후기베이비부머의 경우 노후설계 필요성을 인식하나 실제 준비는 하지 못하는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후기집단이 노후건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현상도 주목할만한 것이며, 이들은 전기집단에 비해 기대여명이 더 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후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관리의 방식과 투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은퇴설계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남성 베이비부머가 여성에 비해 노후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준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설계의 인식과 준비수준이 낮은 여성의 노후가 남편에게 의존적이거나 취약한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노후생활준비정도에 거주지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의 노후설계수준이 대체로 높았다. 이는 지역별 산업과 직종의 상이성과 그에 따른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기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노후설계에 대한 정보 습득과 국민연금 가입 등 경제적 준비의 기회가 적은 여성, 그리고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에게 구체적인 은퇴설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이 많은 전기베이비부머 집단은 은퇴노후설계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들이 은퇴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을 대비한 사회전반의 준비가 요망된다. 특히 전기 집단은 경제적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으므로 은퇴이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획득을 지원해주는 재취업 교육과 노동시장의 확대 등 고령자 재취업 지원정책이 요망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젊은 후기베이비부머 집단은 맞벌이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전기집단보다 양호하나 기대여명이 더 길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수준은 전·후기 집단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후기집단에게 노후생활설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장기적인 생애설계의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나 준비의 하위영역이 제한적이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가족자원 등을 연구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생활설계 및 노후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영관·주재선(2010). 베이비붐세대 남녀 특성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나일주·임찬영·박소희(2008).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 국가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42(4), 151-173.
- 3) 류애정(2010). 베이비붐세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방향성 모색 : 일본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75-101.
- 4)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5) 방하남(2011). 베이비붐 세대 :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리뷰, 71, 5-9.
- 6)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7)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8)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9) 서지원(2012).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41-66.
- 10) 양정선·고지영·이상람·이정화(2011). 경기도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생활 및 노후준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11) 여윤경·문숙재·정순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중산층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 12) 이성균(2011).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성취와 직업경험의 다양성. 노동리뷰, 71, 38-49.
- 13)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4)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6)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87, 40-49.
- 17) 정호성·강성원·문외솔·박준·손민중·이찬영·이은미·이민훈·박변순(2010). 베이비붐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주요국(미·일) 비교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 18) 조선일보(2011). 미리 설계하면 장수는 리스크 아닌 축복. 2011. 12. 31.
- 19) 조혜진(2012).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노후의료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44.
- 20) 조희금·송혜림·박정윤·권태희·김경화·김주

- 현·김혜영·윤소영·윤진숙·이진숙·정민자 (2010). 2010년 제 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21)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22) 한경혜(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라이프코스와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2010년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23)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24) Kelly, S. & Harding, A.(2004). Funding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s. *Agenda*, 11(2), 99-112.
- 25) Lusardi, A. & Mitchell, O.(2006).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 the role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University of Michigan Retirement Center, Working paper.

- 투 고 일 : 2013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4월 5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5월 14일